

충남도 산하 싱크탱크간 공동협력 응원해야*

송두범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 행정학박사

충청남도 산하 6개 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얼마 전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간 공동연구단 구성에 이어, 도 산하 연구기관간 상생협력체결은 기존의 분할된 전문지식에서 탈피하여, 통합된 지식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통합관리’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미 정부부처 소속의 모든 국책연구원을 그 성격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4개 연구회로 구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 4개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지원, 연구 성과의 공유, 협동연구실시 등을 통해 국가 정책 발굴 및 지원에 통합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어 왔던 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물통합관리본부’, ‘수질총량관리센터’ 등을 설치하여 통합적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물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개별 조직의 역량강화에 관심을 두어왔을 뿐, 연구기관간 거버넌스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 결과 개별연구기관 자체의 질적·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기여도를 높이는 데는

*이 글은 중도일보(2008. 9. 1)에 게재된 글을 정리한 것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 산하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단 구성 등 유기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자치단체와 도민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통합적 도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기관간에도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연구원에 대한 벤치마킹과 합동연구를 통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로봇랜드 대전유치,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청주공항활성화 등과 같은 충청권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적인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현안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동일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간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 및 지역개발, 농촌개발, 산업경제, 역사문화, 여성, 인적자원 개발, 전략산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연구단을 구성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종합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별 연구원간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 참여 등 한정된 형태의 공동연구는 있어 왔지만, 도 산하 연구기관을 망라하는 연구네트워크 구축은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협력과 제휴는 우리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의 싱크탱크 모두가 개성 넘치고 창의적인 자기만의 색깔을 뽐내며 동시에 충남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통합된 사고로 결집할 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